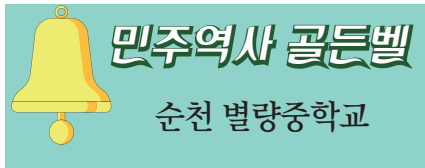


“지역사회 아픈 역사 기억하고 공감하는 학생 되길”



높은 난이도 문제에 줄줄이 고배
최후의 2인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
피해자 수 맞힌 김에스라 학생 우승

여순사건 76주기를 맞아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여수·순천 10·19 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대회’가 21일 순천 별량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남일보·전일엔컬스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전남도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여수 별량중 3학년 학생 41명이 참여했다.

이번 골든벨 대회는 지난 17일 여수 무선중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의 여순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비극적 현대사인 여순사건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국가권력 탓에 70여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다”며 “다행히 2021년 7월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온 국민이 여순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디 그날의 아픔을 딛고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천 별량중 3학년 학생 41명이 21일 별량중 체육관에서 전남일보와 전일엔컬스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전남도교육청 후원으로 열린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바로알기 골든벨’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예회복에 작은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욱란 별량중 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별량지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기획해 여순사건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여순사건에 대해 배우고 유족과의 만남을 통해 여순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의 아픈 역사를 알고 공감하며 다시는 역울한 사람이 없도록 여순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별량중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골든벨 참가 학생들에게는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에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피해, 영향 등이 담긴 자료집이 별도로 제공됐다. 일부 학생들의 자료집은 이미 너털너털해지는 등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엿보였다. 학생들은 시작 직전까지 자료집을 살펴보고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화이트보드판을 하나씩 챙겨든 학생들은 시작과 동시에 비장한 표정으로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양홍석 여수고 교사는 진위형(OX), 선다형, 단답형 등 다양

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다.

‘OX 퀴즈’로 치러진 예선전부터 학생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첫 번째로 출제된 ‘여순사건은 8·15 광복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문제에 참가자 대부분이 정답인 X를 써내면서 저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미군정의 정책,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관계성, ‘제주4·3’ 그리고 ‘국군 제14연대’에 관한 문제에서 탈락자가 속출했다. 7개의 질문이 끝나자 4분의3 이상의 학생들이 탈락해 반별로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탈락자들은 패자부활전에서 사회자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한 끝에 ‘전

원 부활’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수여중에 주둔해 백두산 호랑이로 악명 높았던 제5 연대 장교(김종원)’를 비롯해 ‘낙안 신전마을’, ‘장대다리’, ‘박창길 검사’ 등 확연히 높아진 난이도에 대다수의 학생은 다시 패자석으로 이동해야 했다.

최후의 4인으로 남은 박서령, 이준혁, 김에스라, 김수정 학생은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각오를 밝히며 결의를 다졌다.

‘국가보안법’과 ‘태백산맥’ 등의 문제에서 3, 4등 순위가 갈렸으며, 박서령, 김에스라 학생은 최후의 2인다운 불꽃튀는 승부를 펼쳤다.

산에서 펼치는 게릴라전을 뜻하는 14 연대 봉기군의 ‘빨치산 투쟁’,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끌려간 섬인 ‘애기섬’ 등 네 문제에서도 가려지지 않은 우승자는 전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피해자 수에서 같았다. 1만1131명이라는 정확한 수를 맞힌 김에스라 학생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김에스라 학생은 “이번 골든벨을 앞두고 여순사건을 공부하기 시작해 우승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둬 앞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에스라 학생에 이어 △최우수상 박서령 △우수상 이준혁 △장려상 김수정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10만원·5만원·3만원·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배부됐다.

글·사진·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미국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여죄 드러나 추가 징역 선고

4명에게 41억여원 편취 혐의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재미교포가 여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

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 도중에도 A씨는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다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성추행 의혹’ 전남대 교수 직위해제… 경찰 조사 중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한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A교수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 중인 여성 2명은 지난 9월 말 광산경찰에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학교 측은 사건 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시켰다.

전남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학교에서 접한 직후 바로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착수한 상태며, 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사제지간이나 교직원 간의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파악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은지·정성아 기자

2024 강진 만가 여행

제9회 강진만 충추는 갈대축제

10.26.(토) - 11.3.(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주관 | 강진군/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갈대밭

· 생태탐험대 ‘강진만은 살아있다’

· 갈대로도 달빛야행

· ‘갈대 컬러로물들이다’ 야간 경관

주요 이벤트

· 무료 ‘양산대야’ (보증금 5,000원)

· 근대 의상 체험

· 음면대항 씨름대회

· 맨손 장어잡기 체험(유료)

힐링 놀이터

· 나무야 놀자

· 갈대밭 그림 그리기 참여자 기념품 제공

· 액션 에어바운스

어린이 공연

· 핑크퐁과 튼튼샘의 댄스파티

· 엄마 까투리 싱어롱쇼

· 샌드아트 공연

· 버블매직쇼&솜사탕쇼&우유파티

황금빛 갈대열차

₩ 유료

○ 운행코스

자전거 대여소> 생태홍보관> 자전거도로

특별 연계 프로그램

· 강진 교육지원청 K-Edu 강진 글로벌 공생한마당

· 강진중앙초등학교 ‘다랑오케스트라’ 공연

· 전남음악창작소 뮤지션 공연, 독방 피아노 음악회

· 강진문화원 ‘강진문화예술인 한마당’

· 극단 청자 연극공연 ‘푸른흔’

개막공연

10. 26.(토) 18:00

진욱

조정민

손태진

8090 음악여행콘서트

10. 27.(일) 18:00

민경훈

코요태

갈대추억 콘서트

11. 2.(토) 18:00

오유진

백지영

폐막공연

11. 3.(일) 18:00

안성훈